

중 ·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성행동과 관련된 요인들

윤 경 지* (동의대학교 아동기정신건강학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성행동과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행동은 과거와 비교하여 급속도로 개방되고 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산업'의 발전과 성에 대한 사회적 개방 풍조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청소년들의 성행동이 더 자유스러워지게 하는데 일조하였다. 청소년들의 성행동은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후유증을 남기며, 건전한 성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성행동은 쉽게 임신으로 연결되며, 이로 인한 혼전임신은 인공유산, 미혼모와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연간 100만명의 10대 소녀들이 임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중에서 40% 정도는 인공유산을 하고, 10%는 자연유산, 나머지 절반정도는 출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van Winter and Simmons, 1990). 이들의 절반 정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빈곤 등 또다른 사회문제를 연결되기도 하며 미혼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도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혼전 성행동에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여학생 39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자료는 spss/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문제를 위해 중다회귀분석, 신뢰도 측정(Cronbach's α), oneway ANOVA 및 ANOVA, 그리고 기초통계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파트너수, 응답자의 성태도, 파트너간 애정, 그리고 분위기가 주요한 요인들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파트너의 애정보다는 파트너의 숫자와 분위기가 더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혼전 성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주는 파트너간 애정이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는 다른 요인들보다 더 적은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의 의식변화나 점차 퇴색해가는 정조관념을 반영하는 것처럼 나타나 흥미로운 결과이다. 다른 주요 요인들 중에서 또래친구의 영향력, 부모의 모니터, 및 부모와의 대화 등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과 지도가 시급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자녀들의 성행동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데이트 할 때의 분위기나 이성간 사랑 등이 여학생들의 성행동에 주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에 대한 성교육과 지도가 시급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특히 자녀가 청소년기에 이르렀을 때 성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교육이 더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